

# 시대정신과 그에 따른 조경의 변화양상

- 향후 연구진행을 위한 실험적 연구 -

박병민\* · 김태경\*\*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경제성장기 동안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괄목할 만한 물질·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사회의 고도성장은 예측이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서 시대정신 또한 바뀌게 되었다. 조경도 현재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와 진화를 하고 있다. 1972년 한국에 조경이 도입되어 학회가 설립되고 본격적인 태동을 알린 후, 갖은 역경을 딛고 성장해 이제는 발전과 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초창기 조경은 대부분 수목식재와 시설물공사가 주류였으나 이제는 조경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도 현대의 환경, 경제, 사회, 문화의 복합적이고 결합된 가치체계 속에서 타 분야와의 무한경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안정화 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과거의 성과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사회의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에 따라 조경영역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신문을 통해 정권별로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정신을 도출해내 동시대 조경작품에 그 시대정신이 깃들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구에 앞서 일련의 방법론이 타당한가를 검증해 보기 위한 실험적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시대정신을 도출해 내기 위해 신문기사를 선택하였는데 분석 대상 신문으로 발행 부수와 구독률이 높고, Data base 구축환경이 우수한 조선일보를 선정하였으며 일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기사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부분 참고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모든 기사를 확인한 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조경계획의 설계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조경잡지의 대표적인 환경과 조경을 선정하여 툰키프로젝트, 현상공모,

실시설계 자료를 모은 후 분석하였다.

### 3. 연구범위

이 연구는 신문을 통해서 시대정신과 조경계획의 연관성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이므로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최근의 5년(2005~2009)을 범위로 하였다.

## II. 시대정신의 도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이기에 연구범위로 정한 2005~2009년을 하나의 시대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시대상황

2005년 6월 19일 경기 연천의 최전방 GP에서 장교와 사병 8명이 살해되고 4명이 사상을 입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범인인 김 일병은 평소 선임의 욕설과 구타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로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는 소통의 부재가 나온 참혹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밖에 국정원의 X파일과 불법도청 사건, 사학법 등 3대 입법 강행, 황우석 논문 조작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 월드컵 본선진출 등의 소식들도 전해지는 2005년이였다.

2006년에는 많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일들이 많았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와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국민을 환호하게 해주었고 한미FTA 협상은 국민을 안타깝게 하거나 혹은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였다.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뒤로하고 2007년 한미FTA가 타결되었고 국민과의 소통을 염원하며 국민이 던진 한 표, 한 표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태안에서는 유조선 충돌로 원유가 유출돼 태안반도 일대와 보령,

서산 등지로 밀려오면서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보게 되면서 전국 3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 기름제거 작업을 하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또한,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2012년 세계박람회 등의 유치권을 따내면서 지구촌의 굵직한 축제를 대한민국에서 유치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로 종합 7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떨친 무대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주기도 했다. 망치국회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보 1호인 승례문이 불에 타 무너져 내렸다. 광화문 일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촛불 물결로 가득 찼고, 연예인들의 자살소식이 끊이지 않고,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반 토막 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 자살로 이어졌다.

2009년에는 유난히 죽음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현대사의 거목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국민을 안타깝게 했고 살인마 강호순은 무고한 시민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국민을 분노케 하였으며 경찰관을 포함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사건은 씁쓸함을 남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 2. 시대정신

2005~2009년의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본바 GP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선임과 후임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차이와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에서 비롯하여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해 일어난 참사라고 보인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또, 여·야 간의 격한 싸움판으로 변진 국회는 정치체제의 소통역량이 가장 낮은 곳이 한국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방대한 규모의 촛불시위는 한결같이 시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양상으로 보였다. 이것은 비단 과거에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다. 2011년 5월 12일 자 동아일보 칼럼 '2012년의 선택, 키워드는 소통'에서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2012년에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 여·야 모두에 필요한 것은 지역, 세대, 남북, 계급이라는 국민의 '부분적 의사(partial will)'에 호소, 영합하기보다는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기고하였고 같은 해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제목으로 교수신문에서 전국의 대학교수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36%가 '엄이도중(掩耳盜鐘)<sup>1)</sup>을 꺾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물론 위의 칼럼과 기사는 정치권의 양상을 두고 정부의 소통 부족과 독단적인 정책 강행을 비판하기 위함이지만 하지만 정치의 핵심이 소통이라 할 때 정치권에서 소통이 막힌다면 다른 부분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근거

를 바탕으로 이 시기(2005~2009년)의 시대정신은 소통, 소통의 필요성이라 말하고 싶다. 소통은 모든 삶의 기본이다. 단순히 정보와 메시지가 전달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은 귀를 기울여 남의 말을 듣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도 아니다.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르거나 상반되어 보이는 이해관계를 일반화된 이익으로 조정하는 행위로 연결되어야 완성된다. 그래서 소통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김영욱, 2011: 1).

## III. 시대정신과 조경계획의 연관성 여부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속에는 많은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경계의 요소 중 대부분은 현대도시에서 특정 영역을 한정하여 그 성격을 유지하게는 하지만 다른 영역들과의 교류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도시공간구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간과 공간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과거와의 소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Wilhelm Dilthey)는 인간은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의 본질도 역사를 통해 형성된다 했으며 인간 본성의 총체는 곧 역사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역사는 과거의 시간을 뜻하고 인간의 현재의 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큰 의미로 시간과 시간 간의 소통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즉, 소통은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 사람과 공간 그리고 시간과 시간 간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분류를 통해 조경작품의 설계개념에 시대정신이 깃들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해 본다.

### 1. 대구 남구청 조각공원 현상설계 당선작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속칭 빨래터라 불리며 기존에 조각공원으로 조성된 대상지에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이 부합된 주제의 조각공원을 만드는 동시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자연성을 증진 시키는 방향의 계획이다.

빨래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해 대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공간 설계를 하였고 현재와 과거라는 공간 사이에 도로로 말미암은 단절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시간의 흐름이란 개념을 부여하면서 시간과 시간 간의 소통을 보여 주고 있다.

### 2. 암사 역사 생태공원 현상공모 당선작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대상지는 본래 역사적 특성을 살려 역사와 진화 그리고 문화의 "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계획과 공간 형태 설계를 통해 시간과 시간 간의 소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 3. 은평뉴타운 3지구 턴키 프로젝트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일대에 리조트 같은 전원생태도시를 꿈꾸며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단지 계획이다.

단지 내 숲길과 커뮤니티 공간, 수변공간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사람과 공간 간의 소통과 공간과 공간 간의 소통을 보여주고 있다.

### 4. 파주 운정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 현상공모 가군 최우수작

파주 운정 신도시는 공원·녹지가 2,794,298㎡로 전체 도시의 30.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지이다. 파주운정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모 배경과 목표로 진행되었다.

- 1) 친수환경의 생태도시 및 U-City의 개발방향에 부합하고 수도권 서북부 성장도시로서의 참신성과 정주성, 장소성을 고양할 수 있는 공원·녹지설계 제안
- 2)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수용 및 공원문화 제안
- 3) 도시, 단지, 자연과 생태계를 중재하고 문화를 융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 구현

그 밖의 세부적인 계획방향을 토대로 가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7 Esplandes는 “공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새로운 공원의 지평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7가지의 길을 통해 사람, 문화, 자연, 도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 기능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해 사람과 공간 간의 소통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 5.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 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충청남도 연기군 장남평야 일대, “활력있는 경관 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 거대한 공지는 비위계적·탈 중심적·민주적 도시의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관조와 휴식 위주의 전통적인 공원 보다는 도시와 적극 소통하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동적·생산적 공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

목을 끈다(배정환, 2007: 4).

거대한 규모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부지만으로도 주목을 끌던 설계공모의 당선작인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s”의 심사총평을 보면 “제목이 제시하듯, 이 안은 장소의 역사로부터, 그리고 공원 설계에 대한 새롭게 혁신적인 사고로부터 영감을 끌어오고 있다. ...이 계획은 전통 문화, 자연과의 관계,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도출해낸 명확하고 단정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사람, 공간, 시간 간의 소통을 다차원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부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용자의 요구도 많아져 하이브리드적 설계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만큼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이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시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결과 및 고찰

실험적 연구라는 한계성이 따르긴 했지만, 조경작품의 개념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이용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 결국엔 시대정신을 내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넓은 연구범위와 체계적으로 정립된 분석방법을 사용하면 세부적이고 명료한 시대정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이고 명료한 시대정신이 도출된다면 정권별로 시대를 구분해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조경영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엄이도충(가릴 엄, 귀 이, 흙질 도, 쇠북 충)’은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난이나 비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소용없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 인용문헌

1. 김영옥(2011)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사회의 소통위기 진단과 전망 발표집.
2. 김효수(2006) 신문을 통해 본 조경의 정책과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대구 남구청 조각공원 현상설계. 환경과 조경. 제204호, pp. 80-83.
4. 배정환(2008) 한국 조경의 변화와 주요 작품. 한국 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전. pp. 202-253.
5. 배정환(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의 과정과 의의. 환경과 조경. 제234호, pp. 106-111.
6. 암사 역사 생태공원 현상공모. 환경과 조경. 제207호, pp. 110-113.
7. 은평 뉴타운 3지구 턴키 프로젝트. 환경과 조경. 제219호, pp. 138-141.
8. 파주 운정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 현상공모. 환경과 조경. 제230호, pp. 120-122.
9.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환경과 조경. 제234호, pp. 112-121.
10. 한상진(2009) 소통사회학의 도전과제: 민본 21기획. 한국사회학회 전 기사회학대회 발표집.